

정재석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지난 14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이하 국교위 전문위)에 정재석 위원장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2년동안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교육 정책 사전 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국교위 전문위는 교육 전문가 11명으로 구성, 교육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현행 교육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 위원장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을 맡으며 5년여 만에 전북교사노조를 전북의 제1교원노조로 성장시켰다. 또한 지역 교육 붕괴, 교권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에 위촉된 점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서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전북교사노조 제1대~제4대 위원장,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 및 정책연구국장,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교육을 가로막는 벽’,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 등 교육 정책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 농축협조합장운영협 “올림픽 유치 기원”

정읍시농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의장 샘골농협 허수중 조합장)는 17일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유치”를 기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개되는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NH농협정읍시지부 김순기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정읍시농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 의장 샘골농협 허수중 조합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읍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개발공사,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전북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송재철)는 봄철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건설현장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관리중인 시설물 13개소 및 토목·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설현장 7개소로 총 20개소다.

이번 해빙기 대비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붕괴, 유실, 전도, 낙석 등 위험시설 안전조치 여부 △응급 복구(툰마데, 방수포) 시설관리 상태 및 노후 훼손 시설 보완 여부 △안전 전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고창소방서, 해빙기 맞아 안전사고 주의 당부

고창소방서는 해빙기를 맞아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얼어 있던 강과 저수지, 하천 등의 얼음이 기온 상승과 함께 녹으면서 얼음판이 약해지고, 지반이 약화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창 지역은 농업용 저수지가 많아 주민과 낚시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얼음판 위에서 낚시나 산책 금지 △공사장 및 축대, 옹벽 등 붕괴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도로 가장자리나 보도블록 균열 지역 통행 시 주의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공사장 붕괴나 토사 유실 등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신풍동 복지기동대, 정기회의·봉사활동 실시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가 17일 복지기동대 정기회의를 개최해 올해 전북복지기동대에 대한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거동불편 취약계층 5세대에 안전손잡이 교체 및 전기문센터 화재예방 스티커 부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최임과 신풍동 복지기동대장은 “지속적으로 생활이 불편한 이웃을 살피고 재능기부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역량강화 앞장”

한국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 제16대 김윤희 신임회장 취임

장수군은 지난 14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 제 15·16대 회장이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 이행단 한국생활개선전북지치도연합회 회장, 장수군 농업 관련 단체 임원과 생활개선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회장직을 맡은 이화립 임의회장은 30년간 생활개선회 활동을 해오며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새롭게 취임한 제16대 김윤희 회장은 “농작업 환경개선과 지역나눔의 실천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과 역량강화에 앞장서겠다”며 “장수군 생활개선회가 최고의 농촌여성단체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 생활개선회는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의 권익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대 기술경영공학과 21학번, 친환경 캠퍼스 조성 앞장

졸업맞이 태양광 스마트그늘막 제작·기부

전주대학교 미네르바학부 기술경영공학과 2021학번 재학생들이 졸업 기념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스마트그늘막’을 제작해 캠퍼스에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공학설계 및 제작을 거쳐 설치까지 진행한 결과물로, 기술과 실용성이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태양광 스마트그늘막은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조도량과 풍량을 감지해 환경에 따라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휴대폰 및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 실용성을 극대화했다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수동 제어 옵션도 포함돼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인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술경영공학과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우리가 배운 기술을 활용해 캠퍼스에 의미 있는 선물을 남길 수 있어 뿌듯하다”며 “태양광 스마트그늘막이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현애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현하면서 사회적 역량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미네르바학부는 일학습 병행 성인을 위한 대학으로 학습과 현장을 결합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적극 채택, 이를 통해 문제 해결형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하림, 초교 입학 앞둔 직원 자녀에 선물꾸러미 전달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17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임직원 55명에게 입학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익산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임직원 자녀의 첫 초등학교 입학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학용품종합세트와 인형 꽃다발을 선물했다.

입학선물들은 해당 직원의 대표로 5명이 직접 전달받았고, 직접 수령이 어려운 외부사업장의 직원들에게는 가정으로 택배 발송했다.

선물상자는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노트, 색연필세트, 크레파스 등 문구세트와 용가리 스트링백, 축하꽃다발, 치킨상품권 등의 선물과 함께 직원과 자녀에게 보내는 정호석 대표의 축하 메시지로 구성됐다.

응원 선물을 받은 물류팀장 박대관 차장은 “우리 가정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는 회사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선물을 받고 좋아할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행복하다”고 전했다. 아이가 선물을 받고 무척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임직원 여러분의 환한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학교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딛는 자녀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인사

전북대학교

◇부총장 및 처장급 ▲교학부총장 이봉헌 ▲연구부총장 이준화 ▲대의협력부총장 문명숙 ▲대학원장 김성민 ▲교무처장 오상욱 ▲학생처장 조동후 ▲기획처장 국경수 ▲대학원혁신·연구처장 김희선 ▲입학처장 안정용 ▲국제처장 조희립 ▲교육혁신처장 심재우 ▲정보혁신처장 김순태 ▲사무국장 강정석 ▲산학협력담당장 손정민

◇부처장급 ▲교무학사부처장 김태환 ▲학생지원부처장

유창호 ▲기획조정부처장 정창규 ▲재정기획부처장 노산하 ▲대학원혁신·연구처 대학원혁신부처장 김경곤 ▲대학원혁신·연구처 연구진흥부처장 이승복(국제이공학부) ▲입학부처장 김진규 ▲언어교육부처장 김정수 ▲산학협력부처장 박재병 ▲연구지원부처장 박삼복 ▲홍보실장 이정환 ▲국제협력부처장 박천웅 ▲교육혁신부처장 김종성 ▲미래교육부처장 신유정 ▲정보혁신부처장 박현찬 ▲발전지원부처장 박진호 ▲캠퍼스디자인실장 정태일 ▲연구윤리감사실장 박수영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8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소방서,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화재·구조·구급 대원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은 △화재(화재진압 4인조법) △구조(수평구조) △구급(응급의료지도 전문 응급처치 술기) 총 3분야로, 특히 점차 복잡해지는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워크를 중점으로 둔 중점을 선정해 진행한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평가는 현장대원이 평소 실시하는 직장훈련의 성과를 측정하는 만큼, 직장훈련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농협, 전북대 신입생 대상 아침밥 먹기 운동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4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함께 전북대학교 입학식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균형된 식습관 형성 및 전북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정환 총괄본부장과 전북대학교 박영기 교학부총장 등 양 기관 임직원 및 재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kg 소포장 쌀 3,200개(1천만원 상당)를 나눠주며 아침밥의 효능(정서적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 비만 예방과 면역력 강화 등) 및 중요성,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총력 전개했다.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전원의 아침밥·저녁밥, 농협 쌀 이용 등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전북대학교의 관심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범도민 아침밥 먹기 운동을 비롯해 지속적인 쌀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해 아침밥 먹기 운동 326회,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유관기관 MOU 체결 55회, 오아밥(밥상머리米學) 아침밥 먹기 수기 공모전 실시 등 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쌀 소비촉진 운동을 총력 추진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 등, 노인복지증진과 공동발전 업무협약

김제시는 (주)친환경농법법인 우리농촌살리기공동체네트워크(대표 심상준),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관장 박경란)과 14일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인 일자리 공동체사업장 ‘새참국시’ 운영을 위해 매일 1000인분의 우리밀 국수를 제공, 어르신들에게 역량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예정이다.

또한 세 기관은 농산물 소비 촉진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김제지역 농민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김산동, 경로당 방문해 소통 현장행정 추진

김제시 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관내 27개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경로당 방문인사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영에 김산동장은 주민들과 따뜻한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질의 및 애로사항 등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청취했으며, 한파대비 난방시설 등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동절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당부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바쁜 와중에도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을 방문해 살피주고 귀 기울여주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영에 김산동장은 “어르신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경로당이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경로당에 자주 방문해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